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7호 [루계 제26111호] 주체107(2018)년 8월 2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여나가자

조선혁명은 위대한 력사와 전통, 고귀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위업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8돐을 맞이하고있다.

선군절은 건군절과 함께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의의깊은 날이다. 이날이 있어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총대중시의 력사와 전통이 굳굳이 이어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승리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우리 조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이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자주적삶을 누려올수 있은것도 선군절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 존엄높고 강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앞둔 력사적인 시기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선군절의 의의는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야전복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이어가시며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풍파를 헤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불멸의 혁명실록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시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일찌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보범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최악의 시련이 닥쳐왔던 엄혹한 시기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신것은 인류정치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불꺼진 창가와 숨죽은 공장들을 뒤에 두시고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력사에 류례없는 험난한 로정이였다.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슬아슬한 잡벼랑길과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서슴없이 헤치시며 찾고 또 찾으신 철령과 오성산,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과 강계와 성강, 강선과 락원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를 눈물겹게 전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항로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며 사회주의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걸출한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이다. 여기에는 강국건설의 목표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혁명하는 인민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 사업방법과 일본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다.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도 당해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일심단결을 최강의 무기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을 동지의 대부대로 키우시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우리가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은것도 군대와 인민이 뜻과 마음을 합쳐 결사의 정신으로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우리 혁명대오를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통일체로 다지시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크나큰 공적이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이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만 있으면 타승 못할 적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단결의 철학, 단결의 정신이 맥박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일심단결로 승리떨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혁명적원칙을 양보하면 사회주의제도가 와해되고 혁명이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은 사회주의운동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에 자신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투철한 립장을 지니시고 우리의 사상과 리념, 우리의 원칙과 혁명방식을 굳건히 지켜오시였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주적군위병의 본분,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철리를 깊이 심어주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태를 철저히 고수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이 땅에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고한 서사시가 펼쳐지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게 되였다.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끈질긴 제재봉쇄와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투로 우리의 혁명진지를 허물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시대적환경이 달라져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을 만장약한 우리 인민에게는 추호의 변화도 있을수 없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은 과감한 공격전으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나가게 하는 계속혁명의 교과서이다.

혁명은 공격전이다. 투쟁목표가 높고 과업이 방대할수록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련속공격, 계속전진해나가는데 최후승리가 있다.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방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단 목표를 내세우면 완강히 밀고나가 끝장을 보고야마는 전인불답의 공격정신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오시였다.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로 끊임없이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새로운 혁신의 봉화들이 련속적으로 타오르게 하고 온 나라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혁명적락관이 차넘치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적승리들이 이룩되게 된것은 천만군민을 련속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맹렬한 공격전, 바로 여기에 난관극복의 열쇠가 있고 전진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공격형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혁명적인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주체조선의 강대한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고 장군님께서 천신만고하여 마련하신 인민사랑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게 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위하는 기수, 억척의 지지점으로 장성강화되고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한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척후대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조국땅에서 다발적으로 펼쳐지고있는 특대사변들과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거창한 창조물들, 대고조격전장들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자력자강의 승전포성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불같은 애민헌신의 결정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고결한 충정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며 특히 령도업적단위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관차, 견인기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우리는 세계가 한결같이 칭송하는 천출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행운인가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녕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억척의 신념을 뼈속깊이 쪼아박고 일편단심 최고령도자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가,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전우, 열혈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발기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은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건설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충정의 운동이다. 우리는 자력갱생을 증산돌격운동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고 우리 국가의 저력, 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수입병과 패배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세계를 압도해나가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을 떠난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재를 중시하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과학으로 전진비약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쳐야 한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군민대단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혁명적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때로 총공격전의 전렬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며 군민협동작전에서 주동이 되여야 한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려명신화를 창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추켜세우고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작렬한 전방에서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초석으로 하여 전진하는 주체혁명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각 하**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인민과 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의 뉴대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앞으로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언합니다.

위원장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알 제 리 민 주 인 민 공 화 국 대 통 령
아 브 델 아 지 즈 부 떼 플 리 까

2018년 8월 22일 알좌자이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나의 생일 81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이 담긴 아름다운 꽃바구니와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당, 두 정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동지적이고 형제적인 단결의 전통의 과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 오 스 인 민 민 주 주 의 공 화 국 주 석
분 냥 워 라 찟

2018년 8월 17일 비엔티안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24일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들이 9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의 정당, 단체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들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인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 돌가체브,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엠. 아. 쑤라이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와짐 꾸지민,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끄스멘꼬,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웨. 베. 이씨꼬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들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 그리고 날로 번영하는 주체조선의 현실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타이준비위원회가 10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위원장 좋치드 훔맘이, 부위원장으로 타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차나이 통언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기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출판하며 토론회,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의 천만리길 영원히 잊지 않으리

## 8월 25일, 력사의 이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군 한다.

선군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이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아마도 선군이 없었다면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여 피눈물나는 고역을 치르어야 하고 남들처럼 살길을 찾아 피난을 다녀야 했을것이다.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꽃처럼 만발하고 영원한 승리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질수 있은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군이라는 필승의 보검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에 대하여 이렇듯 긍지높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운명에 얼마나 거대한것을 안겨주었는가를 너무도 똑똑히 체험하였기때문이다.

선군!

새겨볼수록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빨찌산식강행군길이 어려오고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슴 젖어든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철령과 오성산, 대덕산의 높고 험한 산발들이 안겨오고 풍랑세찬 초도의 파도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폭잠과 줴기밥에 대한 혁명일화들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날입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철통같이 다지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

흘러온 력사의 갈피들에는 적지 않은 군사가, 장군들에 대한 기록들이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총탄 한발 날리지 않고 백전백승하신 명장, 한두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온갖 원쑤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그런 전설적위인은 없다.

언제인가 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평한바 있다.

《령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보통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선군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그 지위에서는 너무도 커다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한세기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군화발밑에 무참히 짓밟혀도 그것을 숙명처럼 감수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세상이 보란듯이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가고있다.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배짱이 담대해졌고 조선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새로와졌다.

자연적인 변화도,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닌 이 경이적인 현실, 바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억척으로 벼려주신 선군의 보검이 가져다준 덕이다.

뜻깊은 선군절의 이 아침 조국의 푸른 하늘에 힘차게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의 찬연한 자태를 숭엄히 바라보며 이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우리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주체조선의 기적의 력사가 펼쳐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토대가 억척같이 다져질수 있었음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선군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문을 살가 열어보시라.

그러면 쟁쟁히 들려오리라.

지금으로부터 58년전인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넘친 음성이.

인민군대가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전투정치훈련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문제, 우리 식의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문제…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장병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자신의 정치적신념과 선군의지가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 시각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위업을 끝끝이 계승해나가실 철석의 의지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혁명무력건설구상이 집대성된 그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당과 국가가 군건설, 국방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선군의 강위력한 힘으로 빛나게 완성하실 웅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장거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새기신 력사의 그 자욱이 조국청사에 그렇듯 고귀한 금문자로 아로새겨질줄은 미처 다 헤아릴수 없었다.

그 어떤 사상이나 리론도 현실이라는 엄격한 시험장에서 그 정당성이 철저히 검증되는 법이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겹쌓이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8월 25일이 안고있는 거대한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절감할수 있었다.

생활상어려움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모습과 멎어선 공장, 기업소들을 바라보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이 과연 어떠했으랴.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 정녕 그것은 조국수호의 길이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길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잊지 못할 그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도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몸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결연히 일어나 준엄한 난국을 맞받아 헤쳐나갔다. 아마 우리가 수령님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있었거나 적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딴길을 걸었더라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거기서 끝장나고말았을것이다. …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에 한몸을 내대시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총대로 지키고 더욱 빛내이실 드팀없는 신념이 굳게 자리잡고있었다.

단순히 고난을 이겨낼것이 아니라 최강국의 높이에로 솟구쳐야 한다는 필승의 의지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선군의 길을 앞장에서 과감히 헤치신것이다.

선택하기도 어려웠지만 헤쳐나가는것 자체가 더욱 간단치 않았던 선군의 길이였다.

험난한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겪으신 고생과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들을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일을 돌이켜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시여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고 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된 최상의 선택이였음을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얼마나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는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그 이름 빛내일수 있었던것이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희천발전소, 녕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곳곳에 일떠선 발전소들,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훌륭히 변모된 농장벌들과 도처에 솟아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그뿐이 아니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생산으로 안아온 온 나라의 대경사도, 조국의 모습을 몰라보게 변모시킨 대계도의 기적도, 련하기계와 더불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으로 안아온 새 세기 산업혁명의 탄생도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주체조선의 력사적승리는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선군혁명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선군혁명령도로 이 땅우에 민족자주와 번영의 년대기를 장엄하게 아로새길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민족만대앞에, 인류의 미래앞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할 위대한 업적이 있다.

하기에 선군절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모진 시련을 헤치며 선군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확신, 8월 25일이 있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는 긍지와 자부로 세차게 높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보검으로 뚜렷이 새겨오신 우리 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희세의 천출위인으로서의 완벽한 자질과 품격을 체현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군대가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솟아났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조국이 강해지고 인민의 행복도 끝없이 꽃펴날수 있다는것이 오늘 천만군민이 힘있게 내리는 력사의 정의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리라!

바로 이것이 천만군민이 한결같이 터치는 신념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나고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 백두령장의 신념의 선언

선군.

이 고귀한 부름을 심장에 새겨볼수록 선군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와 가슴뜨거워옴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주체53(1964)년 6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지휘성원으로 사업하고있는 한 항일혁명투사와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투사는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것이라는 확신이 가슴가득 차올랐던것이다.

이것은 그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모든 투사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투사가 그에 대하여 말씀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 멀고도 간고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를 어버이수령님과 조선로동당에 충직한 혁명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순간 투사는 우리 혁명무력의 앞길에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또다시 쩌렁쩌렁 울려왔다.

나는 앞으로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려고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당도 강화할수 없고 정권도 유지할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도 지켜낼수 없다. …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항일의 전장에서 총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라 그런지 자신께서는 총을 특별히 사랑하며 인민군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돌려주고싶다고 하시면서 총은 자신의 첫 동지이며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길수록 총과 함께 피어린 혁명의 길을 헤쳐온 투사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이 솟구쳤다.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총은 나의 첫 동지이며 영원한 마음의 기둥!

바로 이것은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정녕 선군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이 있어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함께 군건설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다.

하기에 뜻깊은 선군절을 맞이한 이 시각 천만군민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선군으로 백승만을 떨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원남

## ◎ 철령이여, 불멸의 그 업적 천만년 길이 전하라! ◎

철령, 안개도 쉬어오른다는 굽이많고 가파로운 험한 령길에 마음 세워보느라면 철령은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이라고, 누구나 철령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아 눈굽은 뜨겁게 젖어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가 와도 넘으시고 눈이 와도 넘으시며 병사들을 찾아 철령길을 달리신적은 얼마였으며 그 길에서 맞고 보내신 애국헌신의 낮과 밤은 또 그 얼마였던가.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자면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철령을 넘으시던 잊지 못할 순간도, 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찾아가봐야 마음이 놓일것 같다고 하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시던 어느해 태양절의 이야기도 철령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정녕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철령의 험준한 굽이마다에 력력히 어리어있어 오늘도 천만군민은 철령을 잊지 못하고있는것 아니랴.

철령이여, 위대한 선군령장의 그 업적 천만년 길이 전하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키우시던 나날에

###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

언제인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동무들에게 한가지 말할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변절하지 않는 동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총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였다.

총과 함께 수십년, 한생을 살아오면서도 총에 대한 이런 심오한 정의에 대해 들어본적도 없는 그들이였던것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 변절하지 않는 동지!

그것은 혁명은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새기시고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 총대를 더욱 튼튼히 틀어잡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지휘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총대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해갈 신념의 맹세가 비껴흐르고있었다.

###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어느해 1월 인민군대의 한 군부대를 시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이 부대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많은 부대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무적의 전투대오로 자라난 군부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운 공로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근위부대의 영예를 계속 높이 떨쳐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진행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교양에 필요한 각종 수단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군인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면서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모든 군인들을 투철한 사상과 신념이 만장약된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은 부대의 장병들은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 고귀한 지침

주체89(2000)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에 소문난 감나무중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던 날에 있은 일이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중대정치지도원을 보시고 무척 반가와하시였다.

몇해전에 중대를 찾아오시였을 때에 만나주시였던 그가 어느덧 군관이 되어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성장했기때문이였다.

대견함을 금치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이런 훌륭한 녀성들을 아끼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사랑어린 말씀에 격정을 누를길 없었던 정치지도원은 한걸음 나서며 위대한 장군님께 앞으로 중대를 꼭 자력갱생하는 중대로 만들겠다고 힘차게 대답올리였다.

그의 결의를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를 짓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직한 어조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중대정치지도원이 중대를 자력갱생하는 중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중대안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는것입니다.

정치지도원은 그만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중대의 정치사상교양사업에 대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정치지도원의 근본을 깨우쳐주시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타이르심은 그만이 아니라 전군의 모든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주신 고귀한 지침이였다.

본사기자 김일권

##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선군길.

불러만 보아도 병사들을 찾아 걷고걸으신 절세위인의 천만리길에 새겨진 만단사연이 가슴뭉클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가장 엄혹했던 고난의 나날에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였다.

다박솔초소, 1211고지, 351고지, 초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

진정 이 세상 한끝이라도 우리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찾아가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길은 몇천몇만리던가.

그 길에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넘으시였던 철령과 지쳐내리는 차체에 어깨를 들이대시고 차를 밀며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도 있다.

이런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로고는 참으로 눈물겨운것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선군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며 한걸음한걸음 사선을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하고도 어려운 길이다. 선군혁명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자니 힘든 때가 많다. 인민군군부대를 비롯하여 가보아야 할 단위들을 돌아보고 수시로 제기되는 일들을 그날로 처리하느라면 하루가 언제 지나가고 새날이 언제 밝는지 모르겠다. …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해치고 어느 하루도 편안하게 다리쉼을 할 사이가 없다고,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하시며 이렇게 흘러간 하루하루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선군혁명일과라고 교시하시였다.

언제나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며 언제 한번 마음편히 쉬지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폭잠과 줴기밥, 야전리발…

이 모든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일과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감동깊이 전해주고있다.

사람들이여, 이 나라의 모든 령길들을 결코 무심히 걷지 마시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장군님 새겨가신 자욱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의 길이 있어 존엄높고 강대한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는것이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 우리 당의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 각지 당조직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뜻깊은 기념일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다.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중요한 리정표를 새긴 력사의 그날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끝까지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천만의 심장속에 새겨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한 로작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군건설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토론과 문답의 방법으로 진행된 학습을 통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황해북도의 당조직들에서는 혁명력사도록과 도서학습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있게 새겨주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신데 대한 내용의 학습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수록한 도서를 가지고 독보, 읽은책발표모임을 자주 진행하여 장군님의 불멸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있다.

함경북도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데서 강연강사들의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강연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얼마전 도에서는 도당직외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뭇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청진가방공장, 어랑천발전소, 염분진호텔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나가 직동적인 강연선전활동을 벌리였다. 《말하라 선군길이》, 《장군님 꽃펴주신 선군의 덕이라오》,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한 강연은 사람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강연을 듣고난 전투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장군님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점음의 양보도 없이 당이 정해준 날자까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갈 전사의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다.

강원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도안의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교양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청년들이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총진군대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올해 3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대학졸업생들로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민, 자주적군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험천만한 칼벼랑길을 단신으로 헤쳐넘으신 그날의 만단사연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념원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을 기어이 앞당겨올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이런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가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는 아름다운 미풍이 발휘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강계시, 사리원시, 평성시, 중강군, 은성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주체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불철주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삼복철무더위와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빨찌산식강행군소식도 대중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이와 함께 당세포위원장들과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을 비롯한 당초급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의 선동자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내용의 정치사업자료들로 선동활동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조국을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벌리는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언제인가 공장구내를 돌아보던 김명학초급당위원장은 합성수지직장 열관리작업반 현장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열관리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을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있었다. 전기보이라에 대한 수리를 하고있는중이였다.

사연이 있었다.

그날 어느 한 기대공이 보이라를 조작하던중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인차 대기상태에 있던 다른 전기보이라를 가동시켰다.

이 일을 알게 된 작업반초급일군들과 기대공들이 달려나왔다.

사실 합성수지직장의 생산에서 열관리작업반은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때문에 이곳 작업반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기술과 함께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날도 그들은 다음날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밤이 깊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전기보이라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있었던것이다.

또 한차례의 전투를 마치였을 때에는 새벽녘이였다. 초급당일군과 작업반초급일군들, 기대공들은 공장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앞에 함께 섰다.

이 공장 영예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있지만 화선병사시절의 정신으로, 총련병사의 자세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이야말로 군인정신이 맥박치는 공장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이 영예군인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를 통해 초급당일군은 영예군인들의 심장속깊이 간직되여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잘 알고 그들의 열의를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든다면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단위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통한 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었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부문당위원회와 당세포들에서 주별, 월별로 참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게 하였다.

또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리용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모든 영예군인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뼈속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합성수지직장, 가방직장, 비옷직장을 비롯한 전투현장들마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직관물로 만들어 게시하는것과 함께 당의 구호들, 불굴의 투쟁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예술작품들도 게시하여 공장을 말그대로 하나의 사상교양거점으로 꾸려놓았다.

이런 사상교양사업의 위력은 실천에서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공장의 영예군인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진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장에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업기풍이 확립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많은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영예군인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참신하게

### 혜산농림대학 초급당위원회에서

언제인가 강일천초급당위원장은 대학초급당위원회앞으로 온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시에서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이 자기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는 목제가공학부 김청록학생을 널리 소개해달라고 청한 편지였다.

그런데 한창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초급당일군은 문득 한곳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그 학생이 영예군인의 군사복무기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주의깊게 듣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학생의 소행이 기특하여 초급당일군은 그를 만나보았다.

학생은 말했다.

군사복무나날에 있었던 영예군인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한가, 우리 시대 청년대학생들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영예군인의 체험을 통해 더 잘 알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의 머리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결국 그 학생은 영예군인을 위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커다란 사상정신적량식을 받아안은것이다.

초급당일군의 사색은 깊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소리나치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옳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참신하고 근기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소행이 적힌 편지들이 올 때마다 적극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왔다. 그래서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학생들의 대렬도 늘어났다. 이런 기풍이 차넘치는데 맞게 모든 학생들을 진절한 혁명정신을 소유한 신념의 인간들로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학생교양을 더 실속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좋은 방법론을 찾아쥐게 되였다. 그것을 실천에 적극 활용해나갔다.

우선 초급당일군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예군인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한편 그가 신심을 잃지 않도록 고무해주었다. 또한 일군들이 학생들과 함께 영예군인의 집을 방문하여 군사복무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감동깊게 들은 후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영예군인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게 되였다.

대학안에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차넘치는것과 동시에 그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런 사업이 심화되는 과정에 학생들의 학과실력에서나 대학꾸리기사업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처럼 한통의 청원편지를 놓고서도 대중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방법론을 찾기 위해 사색을 깊이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

본사기자 허일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 지녔던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다. -평양빛섬유종이제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본때로

### 배천군 화산리당위원회에서

배천군 화산리당위원회에서 제대군인들의 핵심적역할을 높여 당정책관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제대군인들이 핵심이 되여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으며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날 제4작업반에 나간 차원각리당위원장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정형을 료해하였다.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방대한 목표들을 내세웠으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당면한 영농공정을 추진시키자고 해도 일손이 모자라는 조건에서 건설에 로력을 돌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며 작업반 부문당위원장은 못내 안타까와했다.

그에게 리당위원장은 말하였다. 작업반에 제대군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잘 발동해보라고, 풀베기전투때의 경험이 있지 않은가고.

부문당위원장의 뇌리에는 그 전해 여름의 일이 생생히 돌이켜졌다.

풀베기전투가 시작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기세충천하여 련일 실적을 올리던 작업반원들이 손맥을 놓고 주저앉았다. 작업반주변의 풀은 다 베여들이였지만 계획한 량에 비해 어방없이 모자랐던것이다.

이때 3분조장이 제7작업반지역에 있는 저수지주변에서 풀베기전투를 벌릴것을 발기하였다. 15리나 떨어진 곳에서 풀을 베여 날라온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3분조장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던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본때로 풀베기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각오를 안고 그들은 곧 저수지주변으로 달려갔다. 뙤약볕에 그득그득 쌓이는 풀더미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작업반원들이 너도나도 따라섰다. 그리하여 열흘 남짓한 기간에 저수지주변에서만도 800여t의 풀을 베여들이게 되였다. …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은 부문당위원회는 곧 제대군인들을 위주로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일본새는 확실히 달랐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건설작업을 내미느라 피곤이 겹쌓였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막돌이 필요하면 10여리 떨어진 룡각산에 달려가 온밤 막돌을 채취하여 달구지로 실어오면서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하여 짧은 기간에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청년학교를 훌륭히 개건하고 축사와 양어장, 온실도 새로 번듯하게 지었으며 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다.

제대군인들의 핵심적역할을 높이는것을 당정책관철의 중요한 방도로 본 리당위원회는 제4작업반 부문당위원장의 경험토론을 조직하였다. 그후 제5, 6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들에서는 제대군인들로 돌격대를 무어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얼마전 심한 가물이 들이닥쳤을 때였다.

박막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실은 달구지를 몰고 선참으로 강냉이밭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었다. 제5작업반 4분조장이였다.

리당위원장은 초급일군들의 모임에서 제대군인인 그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높이 평가해주면서 모든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가물과의 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뜨락또르는 물론 달구지들을 동원하여 가물을 타는 강냉이밭들에 물을 대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하여 례년에 보기 드문 고온과 가물속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조직의 믿음속에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정책관철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제대군인들의 투쟁과 더불어 농장의 밝은 래일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반일로동조합을 결성하신 90돐 기념보고회 진행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로동조합을 결성하신 90돐 기념보고회가 2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직맹일군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의식으로 무장시켜 조직에 묶어세우는것을 혁명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근본담보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대중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과 반제청년동맹핵심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로동자들을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신데 기초하여 주체17(1928)년 8월 25일 길림에서 반일로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반일로동조합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교양각성시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첫 혁명적인 대중조직이라고 강조하였다.

반일로동조합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진정한 정치조직에 굳게 결속되여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대중조직건설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로동계급의 통일적인 대중조직인 직업동맹을 창립하시여 혁명의 기본동력이며 핵심부대인 로동계급을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직업동맹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혁명적대중조직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의 직업동맹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조직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시고 직업동맹건설과 활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업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서 자기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사상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동맹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과 조직적단결을 이룩하는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되여온 직업동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으며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이 분발하여 일떠서고 직맹조직들이 활력에 넘쳐 들끓을 때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보고자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직업동맹건설과 활동을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보위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령도업적단위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기관차, 견인기가 되어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돌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옹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맹조직들에서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애국자, 계급의 전위투사, 고상한 도덕의 체현자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직맹일군들이 충성의 모범단체창조운동과 전형단위창조의 불바람을 일으켜 전 동맹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끓어번지게 하며 모든 직맹원들이 오늘의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 사업에 헌신하는것은 공화국공민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조국이 없으면 자주적삶과 존엄도, 오늘의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우리 인민은 지나온 력사의 나날에 뼈에 새기였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카집 개만도 못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여 보람찬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었고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어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였다.

영원한 존엄의 상징이고 삶과 행복의 요람인 조국을 보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망국노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새긴 이 진리를 심장에 조아박은 우리 인민은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조국수호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그 길은 험치 않았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달려드는 침략자들과의 싸움은 자주적인민이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사전이였다.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정든 고향, 행복의 보금자리인 귀중한 조국땅이 원쑤들에게 다시는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 온 나라 남녀로소가 모두 떨쳐나섰다.

전선이 따로 없었다.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손에손에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전선으로 용감히 달려나가 원쑤를 무찔렀고 적들과 싸우는 심정으로 후방에서 전시생산을 다그친 우리 인민이였다.

가렬처절했던 1211고지 전투에서 리수복영웅은 18살의 꽃나이에 적의 화구를 막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에게도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가 있었다. 그러나 조국이 없이는 청춘의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삶의 진리를 심장속에 간직한 그였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버렸던것이다.

이런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삶을 조국은 값높이 내세워주었다.

1950년대에 발휘된 전화의 용사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파감한 투쟁으로 고무적려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어느 한순간도 끊긴적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적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려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번질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계속 매어달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수록 사회주의를 더욱 억척같이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는 백배해지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참된 리상과 로부,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면서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은 수많은 청년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는 이기에 최대의 애국이 있으며 청춘의 가장 값높은 긍지와 보람도 있다는 소중한 지향이 간직되여있다.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복무과정에는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불비속을 헤치고 험한 령, 갈며랑을 넘는 훈련길도 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구호를 들고 석수쏟아지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천연암반을 밀어내며 물길굴을 열어나가기도 한다.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통하여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단련되며 그 어느 교과서에서도 체득할수 없는 한생의 귀중한 체험을 쌓게 된다.

청년들이 무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를 체질화한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열혈투사들로 자라나는 과정이 곧 군사복무의 나날이다.

서슴없이 자폭으로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택한 길영조영웅, 위기일발의 순간에 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김광철영웅을 비롯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애국충신들도 인민군대에서 수많이 배출되였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이며 사회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핵심들도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본때, 그 기질로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 애국의 길을 따라 한생을 정로로 걸어나가는 제대군인들이다.

참으로 인민군대야말로 청년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전사로, 영웅으로 키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혁명대학이다.

가정의 행복도, 부강조국의 앞날도 총대에 의해 확고히 담보된다며 너도나도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초소에 내세운 자식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원군길을 즐기차게 걷고 또 걷는 원군미풍자들은 또 그 얼마인가.

조국보위가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되고있는 우리 조국에서는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는것이 자랑으로, 긍지로 되고있다.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을 체질화하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억세게 틀어쥔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 자기 향토를 굳건히 지키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났다.

그 어떤 군사임무도 자체로 천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결전의 시각에는 군대와 어깨겯고 한진초에서 고락을 함께 할 민간무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목숨바쳐 지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본사기자 김 진 욱

# 초소와 고향으로 오가는 편지

## 온 마을의 기쁜 일

어느날 아침 신천군 호암리에 살고있는 정광식동무의 집으로 우편통신원이 찾아왔다. 다정히 아침인사를 건네는 정광식동무에게 우편통신원이 편지를 내밀었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이 집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광식동무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편지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펼쳐들기 바쁘게 소리내여 읽기 시작했다.

《보고싶은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지금 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자랑을 안고 이 편지를 씁니다. …》

편지에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첫번째 병사가 되여야 한다고 일깨워 당부하던 부모와 고향사람들을 생각하며 훈련의 낮과 밤을 이어가면 이야기가 눈앞에 보이는듯 방불히 그려져있고 지휘관들과 병사들 사이에 뜨겁게 오가는 사랑과 정에 대하여서도 감동깊이 적혀있었다.

그는 안해와 함께 몇번이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때였다. 마을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또 어떤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까?》

정광식동무의 자식들이 편지를 보내올적마다 마을사람들이 류다른 관심을 가지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언제인가 그의 둘째아들이 군관학교에 갔다는 편지가 날아들어 마을사람들을 기쁘게 했던것이다.

자식들이 이런 좋은 소식들을 보내오니 얼마나 기쁘겠는가고 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정광식동무는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니 온 마을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정말 옳다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 부모들의 소원

고룡군 방성리에 살고있는 신명철동무의 집 방안의 한쪽벽면에는 여러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과 군복을 입은 자식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신명철동무와 안해는 때없이 자식들의 조선인민군입대증과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군 한다. 그럴 때마다 초소에서 보내온 자식들의 편지들을 다시금 펼쳐보는것이 어느덧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몇달전 《로동신문》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어느 한 인민군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이 실리였을 때였다.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를 랑탄버처럼 둘러싸고 목청껏 환호하는 군인들의 격정에 넘친 모습, 젖은 눈길로 신문을 보고 또 보던 그들은 혹시 하는 생각을 앞세우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환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병사들의 모습을 한땀한땀 자세히 어겨보기 시작했다.

우리 자식들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날 저녁 그들은 초소에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편지를 쓴다. …》

이렇게 서두를 뗀 편지에 그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걸사옹위하는 길에서 조국이 알고 인민이 아는 훌륭한 병사들이 되라고 썼다.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채우는데 모든것을 바칠 자기들의 마음도 적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조국보위초소에서 고향으로, 고향에서 조국보위초소로 수많은 편지들이 오가고있다. 고향의 부모형제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가슴에 품고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우리 군인들이다. 초소의 자식들이 보내온 편지를 자랑스럽게 펼쳐보며 그들앞에 누구보다 떳떳할 일념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이다.

초소와 고향으로 오가는 편지!

그 편지들에는 조국보위가 최대의 애국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비껴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 교정은 다음번 영웅을 기다린다

## 봉산군 황순복고급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의 운명, 사회주의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봉산군 마산리에 자리잡은 황순복고급중학교에 가면 이른아침마다 학교에 세워져있는 공화국영웅 황순복동지의 반신상주변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우리가 학교를 찾았던 그날 아침도 이곳 학생들은 영웅의 반신상에 새겨진 금별메달을 정성껏 닦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과 포부로 가슴 부풀어오고있었다.

교장 리종헌동무는 황순복영웅의 넋을 심장깊이 새긴 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충대로 결사옹위할 불타는 맹세를 안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황순복영웅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 칼륭선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황순복영웅은 학교가 낳은 첫 영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이 다닌 학교이름을 황순복고등중학교(당시)로 명명하고 그의 반신상을 세우도록 온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이 알고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이 되는것은 이 학교 학생들의 한결같은 리상과 포부로 되고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황순복영웅의 모습이 간직되여있었다.

한 학생은 《황순복영웅과 나》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피로 물든 가슴으로 원쑤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황순복영웅, 그는 어떻게 18살의 애젊은 나이에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위훈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었는가.

선생님은 우리에게 부모형제들은 물론 동무들과 고향마을 사람들, 정든 교정을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이며 바로 그런 사람이라야 당과 수령을 위해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고 늘 말씀하신다.

황순복영웅처럼 살며 배우자. 그리하여 꼭 영웅이 되자.

이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학급 아니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의 결심이다.》

학교에서는 지난 기간 지은글 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속에서 황순복영웅이 지녔던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결과 지난 시기 이 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들가운데서는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미풍의 소유자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그속에는 물에 빠진 하급반학생을 구원하고 희생된 소년단원도 있었고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위험속에서 혁명동지들을 구원한 인민군병사도 있었다.

영웅은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어도 그의 고결한 넋은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살아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겨 영웅의 반신상앞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귀전에 황순복영웅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오는듯 하였다.

《나의 행복, 나의 희망, 나의 청춘—이 모든것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 아닌가!

원쑤놈들이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이 엄혹한 순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민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조국과 인민,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해 무엇을 주저하랴, 무엇을 아끼랴!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내 육탄으로 원쑤의 불구멍을 막으리라!》

이것이 어찌 영웅이 마지막순간에 남긴 말이라고만 하랴.

그것은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는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불같은 의지인것이다.

그 신념과 의지를 비껴안고 영웅의 금별메달은 유난히 빛을 뿌리고있었다.

본사기자 정 영 철

# 새로운 건설신화가 창조되는 곳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명사십리해변가를 따라 각양각이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키돋움하며 솟아오르고있는 천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갈대만 무성하면 이곳이다.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고 불과 불은 오가지 않아도 당이 준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있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위대한 신념을 이어가는 우리도 어느덧 화선길을 달리는 종군기자가 된듯싶었고 위대수령에 적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이야기는 하나의 전투기록이였다.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북돋아주며 군단포의 희생마냥 온 건설장을 세차게 들었다놓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는 또 얼마나 장쾌한가.

어느 한 부대의 건설현장에서 힘차게 울려나오는 취주악소리가 류달리 우리의 귀전을 두드린다.

《근위부대자랑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창조한 근위부대들!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떠올리느라니 또 하나의 전역 갈마전역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이 삼삼히 어려왔다.

수수천년 잠자던 갈밭을 들어내고 팡팡 얼어붙은 감탕층을 정대로 한치, 한치 깨내던 인민군군인들,

아스팔트도 뚫는다는 갈뿌리를 단 한개도 남기지 않기 위해 엄동설한에 그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캐내던 병사의 땀심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관광지구의 도로들과 건물들은 다 말해주고있었다.

저류지공사를 위해 겨울철 찬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고 운전사들이 졸음을 이겨내느라 입술을 너무도 피나게 깨물어 차마 그 모습을 마주볼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듣는것만으로도 눈물이 솟는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달려온 갈마전역, 이곳에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의 한치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전승세대들처럼 모든것을 다 바쳐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가고있다.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은 명사십리해변가에 투려진 병사들의 뜨거운 땀에 대하여 두고두고 추억할것이며 갈마전역에서 창조된 또 하나의 건설신화는 전승신화처럼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것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직 승리만을 떨치는 위대한 전통이 있어 이 땅에서는 머지않아 천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의 자랑찬 포성이 우렁차게 울려퍼질것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은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될것이다.

참으로 미덥고 자랑스러운 우리 병사들, 인민은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잊지 않으리.

유 팔 진

초소에서 온 자식의 편지를 받고 기쁨에 넘쳐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올리일건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선군정치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2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조국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하민일 하부장과 강진영 부하부장, 리용훈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낼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수백일.

그 나날은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이고 혁신이였다.

부대의 장병들은 지난 3월말 5개의 작업갱공사를 끝낸 기세드높이 4개의 보조작업갱공사도 5월말까지 결속하고 지금은 공화국창건 일혼돐전으로 기본물길굴도갱을 전부 완통할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이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기질, 군인본때가 안아온 빛나는 위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당의 믿음을 지켜가는 전투장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격전장으로 여기고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동정철소속구분대가 처음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되는것이 한둘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설비들이 브장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마와 정대로 한구멍 한구멍 발파구멍을 뚫어나갔다. 그렇게 한m한m 전진하는 그들의 앞길을 이번에는 석수가 막아섰다. 시시각각으로 갱에 차오르는 물은 순간에 가슴까지 찼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주저앉는다면 많은 시간을 잃을수 있는 정황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결코 동요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협의회가 열리였다. 그때 지휘관인 동정철동무가 자리를 차고일어섰다.

《우리가 언제 난관앞에 주저한적이 있습니까. 당이 안겨준 담력과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의 눈앞에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은 불가능을 모른다는 신념이 그들모두의 심장속에 억년 드높지 않는 바위처럼 뿌리내렸다.

결사관철의 정신력은 군인건설자들을 창조의 능수로 되게 하였다.

한 군관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들이대여 현속공, 련속발파, 련속공적으로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한 초기복무사관은 비력처리용희전팽차와 송풍기를 창안제작하여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런 불같은 공격정신, 창조정신은 공사장 그 어디서나 높이 발휘되였다.

물길굴건설경험은 물론 그에 대한 표상조차 없는 군인들이 대다수인 지상일소속구분대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네번째로 작업장을 옮기였을 때였다. 그들이 맡은 파제를 제기일내에 끝내는가에 따라 작업갱은 물론 기본물길굴 공사의 전반적기일보장이 달려있는것으로 하여 부대지휘관들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것이였다.

구분대 군관, 병사들은 한달안으로 다른 구분대들의 작업갱 굴진실적을 따라앞설것을 결의하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백열전이 벌어졌다. 발파가 끝나고 버력을 처리하는 즉시에 착암수들은 전투화를 정하고 착암기를 틀어잡았다. 모두가 운반공이 되여 버력을 처리했고 로반을 정리하였으며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전투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군인건설자들은 엄혹한 조건속에서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과 한달만에 다른 구분대들을 따라앞서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결사관철의 기풍이 차넘친 그 나날 전투장에서 통용되였다는 말들은 또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뜻깊은것인가.

단숨에, 폭풍치라…

공사의 첫시작부터 걸음마다 애로와 난관이 막아섰지만 병사의 슬기와 담력으로 그 모든것을 뚫고나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병사가 있고 결사관철의 길에서 빛나는것이 병사의 영예이라는것이였다.

지금도 키가 죽 빠진 희은철소속구분대 한 신입병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가 혁신자의 영예를 지닌 그를 만난것은 항금 교대를 마치고 갱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지금까지의 공사기간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이 무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병사는 말했다.

《처음 일을 배울 때가 제일 추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착암기를 잡고 발파구멍을 뚫던 일이며 넘달리 큰 키때문에 갱안에서 무척 애먹던 일 그리고 억수로 쏟아지는 석수속에서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리던 때를 웃으며 추억하였다.

그와 나란히 선 한 신입대원 역시 이렇게 자기 심정을 마놓았다.

《힘은 들었어도 그때가 제일 보람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작업의 모든것이 손에 선것이였다.

때로는 하나의 작업파제를 놓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것을 이겨내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였다.

공사의 나날 군인건설자들모두가 스스로 정리하군 한다는 항심의 기록장—《나는 오늘 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구분대에서는 지난 5월말 비력처리가 미처 따라서지 못할 때에도 김철민동무가 웨치는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구령에 당원들이 떨쳐나서 2시간만에 버럭운반을 불이 번쩍 나게 해치웠다.

놀라운 속도로 죽죽 뻗어나가는 물길굴, 이제 이곳으로 흐르는 물이 모여 눈부신 아득한 대인공호수가 펼쳐지고 승리의 장엄한 합성인양 우람한 발전기들이 동음을 울리게 될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건설장은 대격전장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완공의 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닫고있다.

본사기자

# 물길굴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낼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수백일.

그 나날은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이고 혁신이였다.

부대의 장병들은 지난 3월말 5개의 작업갱공사를 끝낸 기세드높이 4개의 보조작업갱공사도 5월말까지 결속하고 지금은 공화국창건 일혼돐전으로 기본물길굴도갱을 전부 완통할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이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기질, 군인본때가 안아온 빛나는 위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당의 믿음을 지켜가는 전투장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격전장으로 여기고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동정철소속구분대가 처음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되는것이 한둘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설비들이 브장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마와 정대로 한구멍 한구멍 발파구멍을 뚫어나갔다. 그렇게 한m한m 전진하는 그들의 앞길을 이번에는 석수가 막아섰다. 시시각각으로 갱에 차오르는 물은 순간에 가슴까지 찼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주저앉는다면 많은 시간을 잃을수 있는 정황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결코 동요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협의회가 열리였다. 그때 지휘관인 동정철동무가 자리를 차고일어섰다.

《우리가 언제 난관앞에 주저한적이 있습니까. 당이 안겨준 담력과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의 눈앞에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은 불가능을 모른다는 신념이 그들모두의 심장속에 억년 드높지 않는 바위처럼 뿌리내렸다.

결사관철의 정신력은 군인건설자들을 창조의 능수로 되게 하였다.

한 군관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들이대여 현속공, 련속발파, 련속공적으로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한 초기복무사관은 비력처리용희전팽차와 송풍기를 창안제작하여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런 불같은 공격정신, 창조정신은 공사장 그 어디서나 높이 발휘되였다.

물길굴건설경험은 물론 그에 대한 표상조차 없는 군인들이 대다수인 지상일소속구분대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네번째로 작업장을 옮기였을 때였다. 그들이 맡은 파제를 제기일내에 끝내는가에 따라 작업갱은 물론 기본물길굴 공사의 전반적기일보장이 달려있는것으로 하여 부대지휘관들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것이였다.

구분대 군관, 병사들은 한달안으로 다른 구분대들의 작업갱 굴진실적을 따라앞설것을 결의하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백열전이 벌어졌다. 발파가 끝나고 버력을 처리하는 즉시에 착암수들은 전투화를 정하고 착암기를 틀어잡았다. 모두가 운반공이 되여 버력을 처리했고 로반을 정리하였으며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전투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군인건설자들은 엄혹한 조건속에서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과 한달만에 다른 구분대들을 따라앞서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결사관철의 기풍이 차넘친 그 나날 전투장에서 통용되였다는 말들은 또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뜻깊은것인가.

단숨에, 폭풍치라…

공사의 첫시작부터 걸음마다 애로와 난관이 막아섰지만 병사의 슬기와 담력으로 그 모든것을 뚫고나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병사가 있고 결사관철의 길에서 빛나는것이 병사의 영예이라는것이였다.

지금도 키가 죽 빠진 희은철소속구분대 한 신입병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가 혁신자의 영예를 지닌 그를 만난것은 항금 교대를 마치고 갱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지금까지의 공사기간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이 무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병사는 말했다.

《처음 일을 배울 때가 제일 추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착암기를 잡고 발파구멍을 뚫던 일이며 넘달리 큰 키때문에 갱안에서 무척 애먹던 일 그리고 억수로 쏟아지는 석수속에서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리던 때를 웃으며 추억하였다.

그와 나란히 선 한 신입대원 역시 이렇게 자기 심정을 마놓았다.

《힘은 들었어도 그때가 제일 보람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작업의 모든것이 손에 선것이였다.

때로는 하나의 작업파제를 놓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것을 이겨내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였다.

공사의 나날 군인건설자들모두가 스스로 정리하군 한다는 항심의 기록장—《나는 오늘 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구분대에서는 지난 5월말 비력처리가 미처 따라서지 못할 때에도 김철민동무가 웨치는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구령에 당원들이 떨쳐나서 2시간만에 버럭운반을 불이 번쩍 나게 해치웠다.

놀라운 속도로 죽죽 뻗어나가는 물길굴, 이제 이곳으로 흐르는 물이 모여 눈부신 아득한 대인공호수가 펼쳐지고 승리의 장엄한 합성인양 우람한 발전기들이 동음을 울리게 될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건설장은 대격전장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완공의 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닫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 나라 최전위선수

# 력기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고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의지를 안고 23일 남자력기 77kg급 경기에 출전한 최전위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55kg을, 추켜올리기에서 193kg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348kg의 성적으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한편 기계체조 녀자 기계별결승경기 고저평행봉, 조마운동에서 전장미, 번메영선수들이 각각 3위를 하였다.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남자롱구 검열경기가 진행된다.

다음주에 결속되는 4개블럭 남자축구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서산축구경기장에서 26일에는 조별련맹전에서 3, 4위에 있는 팀들사이 직선경기가, 28일에는 3등과 4등을 가르는 준결승경기와 1등과 2등을 가르는 결승경기가 각각 벌어지게 된다. 다음주에 진행되는 공화국창건기념 녀자축구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4. 25체육단에서
26일 정공업성:체비
암록강:갈매기
27일 월미도:평 양

리명수:내고향
28일 소때수:장수봉
표황산:4. 25
김일성경기장에서
30일 봉화산:평 양
경공업성:장수봉

# 가치있는 연구성과로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

## 국가과학원에서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1월 1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올해의 첫 현지지도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은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훌륭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과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올해에 수십건의 중심전투목표를 내걸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전자공학연구소와 종이공학연구소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고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을 영구보존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건축재료연구소와 도로과학연구소, 열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 단위들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림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현지에 달려나가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건물외벽을 색몰탈로 마감할수 있는 공법, 백두산부사에 의한 도로포장공법을 연구완성하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우리 식의 순환비등층보이라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있다.

열공학연구소와 자동화연구소, 전기연구소, 중앙실험분석소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아래의 근 20개 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나가 현관부문 일군들과 현장일군들,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결사의 투쟁으로 대형보이라에 우리 식의 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도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중유를 전혀 쓰지 않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현행전력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적극 풀어주었다.

종이공학연구소에서는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의 다기능화된 종이생산공정을 어느 한 지방종이공장에 시범적으로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실리가 큰 이 기술을 더 속 확대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생물공학분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결사전을 벌려 올해에 염기견딜성벼와 추위견딜성벼의 도입면적을 확대하고 인슐린연구를 완성하는데서 전진을 이룩하는 등 여러건의 의의있는 첨단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중앙실험분석소에서는 동기조건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우리 식의 비행공연용연막제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의의가 큰 연구성과들도 내놓았다.

흑색금속연구소에서는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벌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일떠선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서 갈철광으로부터 선철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경제적지표를 새롭게 확정하였다.

중앙광업연구소와 지질학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 북부지구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광물자원으로부터 크롬정광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품위가 낮은 원광으로부터 크롬정광을 생산할수 있는 가능성을 확정하였으며 서해안지구에서 품위가 높은 망간토를 찾아내고 능력이 큰 제굴장설계를 완성함으로써 망간철생산을 주체화할수 있는 좋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흑색광업연구소에서도 우리 나라의 희토류광석으로부터 품위가 높은 희토류정광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연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성과는 신발접착제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를 국산화하고 지하전동차생산에 쓰이는 고무 및 수지재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온 함흥분원과 공업용6자유도로보트, 빛섬유레이자강판절단기개발전투를 힘있게 벌려온 조종기계연구소에서도 이룩되였다.

집적회로연구소에서는 기상수문국과의 협동작전으로 첨단수준의 기상레이다를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하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으로 비약할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과학탐구의 나날에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수리공학연구소와 용접연구소, 지질학연구소 그리고 도서관을 비롯한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 단위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고암-답촌철길건설을 완공하는데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과 강동기술무역회사를 비롯한 단위들에서는 강원도양묘장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경기질생산과 종자선별 및 파종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도입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또다시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강원도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우리 식으로 자동화, 정보화한다고,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정말 괜찮다고 하시며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일을 잘한다는 최상최대의 평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최근에 국가과학원에서 이룩되고있는 귀중한 성과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과학원의 역할을 중시하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제일척후전선의 기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권명희

# 바다가양식을 과학기술적으로

## 강령대경수산사업소에서

바다가양식면적을 늘이고 양식의 생산성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강령대경수산사업소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바다가양식을 많이 하면 바다어업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얕은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바다가양식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사업소에서 김생산의 과학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은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몇해전 이곳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김을 더 많이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양식장면적을 대폭 늘이였다.

당시 양식장면적이 늘어난 실정에서 양식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보당 김생산량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넓은 면적의 양식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병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였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는 과정에 일정한 길이이상으로 자라지 않도록 김을 자주 체위하여주면 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하지만 넓은 면적의 김양식장에서 이 방법으로 병을 방지하자면 로력이 절정적으로 부족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이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백명의 로력을 대신하면서도 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새로운 김체위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김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어린모단계에서 병의 발생을 미리 막을수 있는 기술공정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사업소에서는 김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할수 있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다시마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웠다.

다시마양식을 위한 완성된 생산토대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다시마모를 자체로 배양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이곳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다시마모배양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을 충분히 갖춘 새 배양장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러나 배양장을 꾸려놓았다고 하여 다시마모배양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된것은 아니였다.

예견치 못했던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배양실수률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배양탕크나 만들어놓고 필요한 설비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시마모배양이 다된것처럼 생각했던 자신들을 뉘우치고 실정에 맞는 배양방법을 찾기 위하여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였으며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이들은 전기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모배양에 필요한 빛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 수질과 배양탕크의 물온도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다시마모배양을 위한 과학기술적담보들을 하나하나 마련함으로써 다시마양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사업소의 성과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자체의 힘으로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목표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 탐구전, 창조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신 삼복철강행군길에 이어 오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릴 열망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심장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심장에 새겨안고 과학연구사업을 위해 나라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로 떠나갈 때 연구성원들은 누구나 하나의 소원을 품고있었다.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거듭되는 실패속에 마음이 나약해질 때에도, 힘겨워 지쳐 쓰러졌을 때에도 이 불같은 맹세가 그들을 불사신처럼 안아일으켰다.

이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실질적인 과학기술연구성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과학기술책임력량,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고 첨단의 령마루를 웃으며 넘고넘치며 인민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갔다.

그 나날 가슴울렁이며 맞이한 영광의 날들은 얼마였던가.

대학연구집단이 신의주화장품공장에 나가 연구도입한 과학연구성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는 소식이 전해진것은 몇달전이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보이라를 개조하여 적은 석탄으로 감자가루생산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을 때에도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고 온 대학이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그로부터 10여일만에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이들은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로 또다시 기쁨을 드리였다. 그날은 무더운 삼복철의 하루였다.

허나 그이의 삼복철강행군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할 때마다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가슴저려옴을 금할수 없었다.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땀으로 옷을 푹 적시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허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단위, 어느곳을 찾으시여도 언제나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찾아하자!

그들은 이렇게 결의해나섰다.

책임일군들은 자기들이 과학연구사업의 1번수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북창과 황철등에 달려나가 연구성원들과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대책도 세워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한편 수십개의 중요대상들에 나가있는 연구집단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목표로 내세웠던 180여건의 중점과제들을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철야전투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대학에서는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단위들의 현대화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수지용기생산공정확립, 신의주방직공장과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통합생산체계구축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설정하고 문헌연구와 기술준비, 설계전투를 진행하고있다.

벌써부터 대학으로 가슴후련한 새 소식들이 련이어 날아들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의 연구도입사업이 성공하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는 흐뭇한 소식에 이어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저품위망간토로 망간철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방안이 나왔으며 수많은 첨단기술제품들이 개발되였다. 불수강국산화를 비롯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부문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밖에도 성공을 눈앞에 둔 연구사업들도 적지 않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돋보이는가.

본사기자 김명훈

# 비상한 사색과 탐구로 안아온 결실

## 수산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적극 추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동해안에 있는 여러 수산사업소들에서 수산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 회유성물고기자원연구집단의 과학자들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 그것은 이들이 연구완성한 조선동해 주요회유성물고기들에 대한 어황예보체계의 맞춤률이 아주 높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각 수산사업소의 선장들에게 주요회유성물고기들의 어황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물고기잡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때문이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곳 과학자들이 그때당시까지 연구완성한 어황예보체계의 맞춤률은 그리 높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러 수산사업소들의 선장들은 그 어황예보체계에 전적으로 의거하지 않고 자기의 오랜 물고기잡이경험을 더 믿는 경우가 다분히 있었다.

전철성실장은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되는것을 놓고 연구소의 소장, 과학부소장과 진지하게 론의하던 과정에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그것은 륙지에서 어황예보를 한 다음 그 정확성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놓치고있다는 점이였다.

책상앞에 앉아 해당한 정보자료만을 분석하며 리론적으로 도출해낸 어황예보가 배를 타고 직접 바다에 나가보았을 때와 차이나고 아직 고려하여 더 첨부하지 못한 분석지표들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리치였다.

그래서 연구소의 행정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회유성물고기자원연구집단의 모든 과학자들이 현실에 나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소에 보내오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그 자료들을 통해 틀린 예보의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리광수, 오정남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신포, 단천, 김책, 청진지방 등 여러곳에 나가 직접 주요회유성물고기들에 대한 어황예보체계의 맞춤률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조선동해수역에서 물흐름방향과 이동속도, 물고기떼의 이동경로, 해당 어종들에 대한 생태학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절별로 해양상태의 변동에 따르는 회유성물고기들의 이동경로와 해당 어종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따라 예보지표들을 추가로 설정하여 어황예보체계에 반영하였다.

뿐만아니라 해상정보가 있은 뒤끝에 물흐름방향이 갑자기 달라진 경우와 예상치 않았던 수역들에 어장이 새로 형성되는 경우와 같은 특이한 정황에서의 어장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지표들과 그밖의 다른 분석지표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심화시켜 필요한 자료들이 계속 어황예보체계에 첨부되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집단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조선동해수역의 지역적특성과 주요회유성물고기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지표들을 알아낸데 기초하여 해당 수역에 들어오는 물고기떼의 수량과 그 이동정보를 주별어황예보에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업,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량에 맞게 수산물생산규모를 정해주고 수산사업소들의 작전과 지휘에 편리하게 어황예보체계의 주별어황예보, 일별어장예보의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분석지표자료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반영될수록 그만큼 주요회유성물고기들에 대한 어황예보체계의 맞춤률은 높아졌고 이것을 도입한 여러 수산사업소들에서의 물고기잡이실적은 계속 올라갔다.

그것이 현장에서 호평을 받게 된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귀결이였다.

이들의 경험은 수산부문의 과학자들이 기존의 연구성과에 자만도취하지 않고 현실에 더 깊이 침투하여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탐구적인 사색과 노력을 기울일 때 창조물의 부단한 경신을 안아오게 되며 당에서 바라는대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데서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애국의 마음

## 선봉지구 선봉산림경영소 우암동산리용반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자라나게 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마음이 없으면 숲을 가꾸지 못한다. 하기에 이 땅의 푸른 숲 설레이는 곳에 가면 반드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가꾸기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훌륭한 인간들이 있는것이다. 이런 사람들속에는 선봉지구 선봉산림경영소 우암동산림감독원 장명일동무와 산리용반원들도 있다.

공훈산림공인 산림감독원 장명일동무의 고향은 회령시이다. 그는 선봉지구에서 푸른 숲을 가꾸어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그가 이곳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그때로부터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그가 제손으로 나무모를 키워 정성껏 심어가꾸면서 조성한 산림면적은 적지 않다. 나무 한그루를 심기에 앞서 조국을 위해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먼저 묻을줄 아는 그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켰다.

최근년간에도 그는 박향련동무를 비롯한 산리용반원들과 함께 푸른 숲을 더욱 늘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술사이양묘장에서의 나무모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산림보호사업에도 보다 큰 힘을 넣으며 푸른 숲을 계속 늘여나갔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길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장명일동무와 이곳 산리용반원들.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오늘도 이들은 푸른 숲을 가꾸어가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일

# 문학인재후비육성에 한생을 바쳐가는 성실한 교육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원예사와도 같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교육자의 보람과 긍지는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한생을 후대교육사업과 나라의 군중문학발전에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남포시 천리마구역 새거리고급중학교 교원 김백송동무와 희천시 매봉고급중학교 교원 도명희동무의 교육사업성과를 놓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 밑거름과 알찬 열매

남포시 천리마구역 새거리고급중학교 교원인 김백송동무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부가 있다. 그가 키워낸 수많은 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리였던 충정의 글작품집들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재부인 작품집들을 한장한장 펼칠 때면 김백송동무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처음 문학소조를 맡아안고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와하던 못 잊을 추억들을 떠올리군 한다.

문학소조를 운영하면서 그가 부닥친 난관은 교원의 자질문제였다. 리론이냐 실기냐 하는 문제에서 그는 둘 다 선택하여야 하였다. 한것은 아동문학작품을 쓰는 과정을 지도교원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글지도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교원의 자질이 높으면 학생들은 자연히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문학소조에 쏠리게 되며 물리교원이 자질이 높고 잘 배워주면 물리에 흥미를 가지고 물리소조에 찾아가기마련이라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를 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여 그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동시, 동요를 비롯한 아동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45분수업과 소조운영, 치차처럼 맞물리는 하루일과속에서도 그는 단편소설 《보배동이》, 동시 《어머니의 품》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어린이들의 심리를 환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리론과 실기가 겸비되고 학생들을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방법도 터득하게 되였다. 470여명의 학생들을 여러 문학상수상자로, 130여명을 전국적인 글작품현상모집당선자로 키워냈으며 1 000여명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각종 출판물들에 발표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긴 학교일군들인 김성춘, 김철민동무들도 자신들이 직접 창작가가 되여 원고를 투고하기도 하면서 교직원, 학생들을 군중문학창작활동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학교당조직의 믿음을 가슴에 안고 그는 문학소조운영만이 아니라 문학수업도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깊은 밤에도 사색과 탐구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로, 10월 8일모범교수자로 되였다.

문학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려는 한 교육자의 마음은 불보다 뜨거운것이였다.

언제인가 그가 문학수업을 진행하던 과정에 창작적소질이 뛰어난 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학생은 부모의 요구대로 다른 소조로 갈것을 희망하고있었다. 자식의 뛰어난 창작적소질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부모를 찾아 발길을 걸으며 그는 끝내 학생을 훌륭한 문학가로 키워 사회앞에 떳떳이 내세웠다.

학생들의 문학적인 재능의 싹을 찾아 그것이 무성한 잎새를 펼치도록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는 한 교육자의 열정은 소조원들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글짓기경연에 참가하거나 문학상을 받고 돌아오는 날이면 학교주변에 나무를 심어 애국의 마음을 키워준데서도 표현되였다.

이름난 문학가가 되기에 앞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그 조국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뜨겁게 노래할수 있기때문이다.

10여년세월 천리마구역의 소박한 문학교원인 그는 알찬 열매를 안아오는 밑거름이 되여 수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을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리였다.

### 꿈과 열정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글작품집 20여건, 30여명의 아동문학상, 청년문학상수상자 배출, 수많은 작품들을 지도하여 《소년신문》과 《자강일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 전국적인 교수경험토론회에 출연…

이것은 희천시 매봉고급중학교 문학교원 도명희동무가 지난 10여년간 문학소조운영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의 일부이다.

현직작가이기도 한 도명희동무가 작품창작에만 전념했더라면 작가적명성을 더 날렸을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남편과 세 딸이 모두 작가동맹맹원, 후보맹원인 그의 가정래력을 놓고보면 그럴만도 하다.

주체94(2005)년 당보에 발표된 도명희동무의 시 《우리 집 부엌이 밝아졌어요》를 읽어본 사람들은 그의 문학적재능과 불같은 열정이면 전문작가로서 꼭 성공할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글짓기를 좋아하고 크면 꼭 이름난 작가가 되리라는 꿈을 간직해온 도명희동무는 자기의 꿈을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어 시대를 노래하는 미래의 문필가들을 키워내는 교원이 될것을 결심했다.

(나 하나의 명성만을 날리는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삶이겠는가.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위대한 우리 조국을 노래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도명희동무는 이렇게 문학교원이 되였으며 학교문학소조운영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학생들속에서 독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새로 나오는 문학작품들의 인상적인 대목을 감동깊게 읽어주고 그 내용을 생동하게 설명하여주는 도명희동무를 학생들은 무척 존경하며 따랐다.

물끓는 생활과 벅찬 현실은 그대로 학생들의 가슴에 시를 주고 노래를 주는 훌륭한 학교였다.

주체98(2009)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도명희동무는 그 걸음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발전소건설장을 향해 떠났다.

우리 장군님께서 서계셨던 자리에도 서보고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직접 체험한 학생들이 지은 시들이 건설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때 그의 심장속에서는 이처럼 훌륭한 시의 세계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넘쳐나군 하였다.

그 아름다운 시의 세계, 그 희망의 세계가 귀중하기에 도명희동무는 그후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진정을 다 바쳐 그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구김살없이 활짝 나래를 펴도록 사랑과 정을 쏟아부었다.

이 나날들에 많은 학생들이 조국과 인민, 시대를 심장으로 노래할줄 아는 나어린 창작가들로 자라났으며 도명희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와 만난 박영순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도명희선생이 바로 그런 큰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도명희동무는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시를 짓는다.

고마운 이 제도, 벅찬 현실로 날과 달이 흐르는 위대한 우리 시대는 쓰고 또 써도 끝이 없고 부르고불러도 끝이 없는 아름다운 시의 바다이기에.

본사기자 김옥별
본사기자 김성룡

# 세계가 우러러 흠모하는 희세의 선군령장

지금 광범한 국제사회가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필승불패의 기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이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선군절과 조국해방 73돐을 맞으며 로씨야 메또-브린트출판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출판사 책임주필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힘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주는 교훈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받들어 수십성상에 걸치는 선군령도의 나날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오늘날 조선의 불패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먄마련방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 타 윈은 담화에서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업적은 조선에서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유산으로 빛나고있다. 김정일각하의 거룩하신 존함과 거대한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치타공지부 서기장은 어느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김정일각하의 업적중에서 특출한것은 선군의 보검으로 렬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참으로 김정일각하는 인류에게 평화의 푸른 하늘을 주신 대성인이시다고 격정을 터뜨리였다.

네팔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오로지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언제나 영생하실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참으로 선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절세의 위인상과 더불어 그이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상징하고 칭송하는 시대어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는 세계정치사에서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종말》을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여 조선이 그처럼 간고한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를 모르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전진해올수 있었는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고 너도나도 사회주의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언젠가 벨가리아조선친선협회는 불레틴을 발행하고 《인민의 운명을 결정한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활동하신 시기는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보와 반동세력들사이의 치렬한 대결이 계속되던 때였다. 이러한 준엄한 시기 김정일동지께서는 철의 담력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김일성동지께서 물려주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공세로부터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 인민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 간고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의 진두에 바로 김일성동지의 계승자이시며 견결한 반제투사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던 시기 사회주의조선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중의 하나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떠나 오늘의 조선을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업적을 그처럼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고 말하였다.

메히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가 있어 조선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될 때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며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주동적으로 맞서싸운다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은 승리의 상징으로 온 세계를 격동시켰다.

당시 아프리카의 한 인사는 《나는 평양에서 진행된 행사들과 조선인민의 웃음에서 바로 막강한 선군의 위력, 위대한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읽었으며 그 승리를 보았다.》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터치는 만민의 찬탄과 칭송의 메아리는 오늘도 온 지구를 뒤흔들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총포성이 울린지가 오랬을것이며 인류는 또다시 세계대전의 참혹한 재난속에 빠져들었을것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가셔주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세계정치흐름을 자주의 방향으로 로숙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펼치신분

##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칭송

선군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펼치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주체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며 사회주의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선군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갈 철석의 의지를 보여주시였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려는것은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바로 이 신념과 의지로 김정일각하께서는 수십성상에 걸치는 선군령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8월 25일은 자주권수호의 력사, 평화수호의 의지가 담긴 뜻깊은 날이라고 할수 있다.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세계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랑가일지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는 조선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룡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다지시고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해서만은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는것은 바로 이 나라가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약소국으로 국제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세계가 공인하는 불패의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선군의 귀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누가 지켜주는것도,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피를 물고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힘이 안받침되지 못하면 자주의 기치를 들수도 없고 견지할수도 없다.

오직 총대를 앞세우는 길만이 무력과 강권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는 길이다.

실로 선군은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구현해야 할 백승의 정치방식, 필승의 보검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공동성명은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조선혁명에서 력사적리정표로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명장이신 김정일각하께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쁠럭불가담운동은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

우리 공화국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성원국으로 된 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1975년 8월 25일 우리 나라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밑에 이 운동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권위를 더한층 높이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사변으로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에 가입한 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독자적이며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서 국제정치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1961년 9월 1일 25개의 성원국으로 첫걸음을 뗀 쁠럭불가담운동이 백수십개 나라들을 포괄하는 광범한 국제적운동으로 장성강화된것은 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책동 등으로 말미암아 날로 복잡해지고있는 국제정세하에서 여러가지 난문제들에 직면해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쇠퇴몰락을 막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을 새로 형성하고 확대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공공연히 유린하고있다. 한편 국경문제, 종교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륵,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심각한 정치위기, 군사적충돌, 분쟁의 격화, 피난민사태를 동반한 인도주의적참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그 주되는 피해자들은 다름아닌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이다.

현실은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며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초창기부터 내세운 숭고한 사명이다. 반제자주, 평화수호를 리념으로 하였기에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으로 될수 있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외부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단결은 곧 힘이며 승리이다. 제국주의세력이 군사쁠럭에 의한 지배권확대와 각개격파전략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유일한 대응책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싸우는것뿐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와 평화를 위한 길에서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며 서로 지지련대하여 일치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고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순결성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배권확보를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온갖 책동과 간섭을 물리치며 복잡한 국제적문제들을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그 과정에 진보세력과 반동세력사이의 력량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 세계의 자주화과정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에 따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전략국가로서의 자기의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으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층의 활동들이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판문점선언리행》, 《우리는 하나》라고 쓴 구호들을 들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며 판문점선언리행에 힘을 보태고 통일에 기여하고싶은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국해방 73돐을 맞으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갈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이 온 겨레에게 북남관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평화에 대한 커다란 믿음이 자리잡게 해준 민족공동의 특대사변이라고 하면서 판문점에서 시작된 북남관계의 새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떠밀어 관계개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남녘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이라는데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민중이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의 차이를 넘어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장엄한 대하에 용약 뛰여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도 대회를 열고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국민주권련대》, 대학생진보련합, 평화협정운동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련일 성명과 호소문, 결의문 등을 발표하며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과 미군철수 등을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통일광신자들은 이와는 배치되게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망발까지 내뱉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가 달린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것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최대의 과제로 된다고 웨치고있다.

최진향

# 근절되지 않고있는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16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군내에서 사병들에 대한 장교, 하사관들의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한 륙군부대에서 중위와 하사가 사병들을 마구 학대한 사실이 또다시 공개되였다.

그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에 소대의 사병 10여명을 한방에 몰아넣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아 손을 묶어놓는 등 온갖 폭력을 일삼았다.

피해를 입은 사병들이 대대장을 비롯한 상급지휘관들에게 이러한 실태를 여러차례 보고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다.

사병들에 대한 만연된 폭력행위는 남조선군내에 군기피, 조기제대풍조를 산생시켰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 신형전투기 취역

이란이 21일 자체로 개발한 신형전투기 《코우사르》를 공개하였다.

하싼 루하니대통령의 참가밑에 테헤란의 메흐라바드비행장에서 전투기의 취역식이 진행되였다.

전투기에는 다목적레이다가 장비되여있으며 각이한 미싸일들을 탑재할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이 그 어떤 원칙들에도 공약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이란을 공격할수 없게 하는 유일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 군사훈련

로씨야의 남부군관구에서 최근 특수련합부대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였다.

로스또브주와 스따브로뽈변강, 꾸반에 주둔하고있는 3개의 특수련합부대가 동시에 훈련에 진입하였으며 2 500여명의 군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훈련과정에 군인들은 북부오쎄찌야와 체첸냐, 다게스딴, 크림의 사격장들에 위치한 가상적의 후방에서 직승기와 정찰그루빠들을 리용하여 위장된 적지휘소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군관구의 까라차예보-체르께씨야공화국에서는 2 500여명의 기계화보병들이 동원된 쌍방전술훈련이 개시되였다.

### 대기오염문제해결조치

몽골정부가 최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수도 울란바따르시에서는 운행과정에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수 있게 설계된 장치를 시내공공뻐스들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50km를 주행한 다음 청소해주어야 하는 이 장치를 뻐스 1대에 3개씩 설치해줌으로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현재 울란바따르시에서는 인구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이 겨울철에 파수지나 낡은 차바퀴와 같은 가연성재료와 석탄을 연료로 쓰고있는것으로 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올해 1월 30일 울란바따르의 대기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수치보다 133배 높았다고 한다.

### 싸이버안전조치

잠비아정부가 최근 사회련결망을 통제하고 싸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나라 정부 수석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법안에 따라 국가를 반대하는 싸이버범죄, 싸이버테로, 싸이버전을 방지하고 대처하는 측면에서 싸이버안전태세를 개선하고 정보수집과 조사, 기소, 사법처리를 보다 쉽게 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 범죄반대투쟁

에짚트경찰이 14일 기자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불안정을 조장하면서 반국가범죄를 일삼던 13명의 악당을 체포하였다.

최근 잠비아의 루사카에서는 3명의 인신매매업자가 억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로씨야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할 립장 표명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21일 미국의 새로운 대로씨야제재소동을 규탄배격하였다.

미행정부가 2명의 로씨야인과 1개의 로씨야회사에 제재를 실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억제정책을 추구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대로씨야제재가 실시된 원인은 수리아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문제 등에 있지 않으며 비렬한 수법들을 리용하여 도저히 가망이 없는 로씨야에 대한 억제정책을 추진하자는 의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랴브꼬브는 꾸며낸 구실들에 근거한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실시에 대처하는것은 전통으로 되고말았다, 늘 그러하듯이 그 어떤 증거도, 근거도 없으며 악의에 찬 교활한 비방중상만이 있다, 미국은 《더 나쁠수록 더 좋다.》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의 제재가 국가의 리익에 손실을 주지 못하도록 그에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민족경제를 보호할데 대해 강조

브라질대통령 미셸 테메르가 21일 한 연설에서 민족경제를 보호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수입강철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에 대처하여 브라질은 자기의 강철공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시기 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 국내강철공업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자기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외국의 경제적침입으로부터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살륙만행

이스라엘군이 17일 가자지대와의 경계지역에서 반강점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총탄을 마구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였다.

그로 하여 시위자들중 2명이 죽고 24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날 가자지대의 보건기관은 지난 3월말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17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온갖 사회악속에 시들어가는 꽃망울들

얼마전 일본의 사이다마현에서 한 녀성이 태여난지 8개월밖에 안되는 자기 딸을 한겨울에 기저귀만 채운채 1회용구럭에 넣고 거의 20시간이나 위생실에 내버려두어 두 다리에 동상을 입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들을 보다 경악게 한것은 범인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딸애의 몸에 20군데나 골절된 부위가 있은것이다. 딸애가 이미전에 어머니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했던것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는 지금 일본 각지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다.

기따규슈시에서 살고있는 어느 한 젊은 부부는 4살 난 아들을 텔레비죤함 서랍에 밀어넣어 산소부족에 의한 뇌손상으로 죽게 하고 3살 난 딸에게는 뜨거운 액체를 퍼부어 화상을 입히는 소름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1살밖에 안되는 자기 아이를 도꾜의 어느 한 식당에 내버린 녀성은 《아이가 필요없다. 나는 자유롭게 놀고싶다.》고 거리낌없이 뇌까리였다고 한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나 모성애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인권불모지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순결한 모성애마저도 사라져가고있는것이다.

예로부터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는 부모들이 어린이학대행위의 주범으로 되고있는 일본의 현실은 이 나라에서 만연되고있는 개인리기주의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부모도 자식도 친우도 모르고 자기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정신적기형아들로 전락시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어린이들을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는것은 일본에서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일본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공공교통수단을 리용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천대를 받고있으며 아이가 울거나 떠들면 미움을 받기때문에 녀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고있다. 탁아소나 유치원을 짓자고 해도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는 주민들이 건설을 훼방해나서고있는 판이다.

이것이 바로 문명을 떠들어대는 일본의 실상이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미국보건후생성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약 67만 6 000명의 어린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사회적버림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그들중 약 1 750명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하루 평균 거의 5명이 목숨을 잃은것으로 된다.

미사법성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신매매업자들에게 끌려가는 어린이가 해마다 1만~2만명에 달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지 그 수가 더 많을것으로 보고있다. 영국에서는 410만명의 어린이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는 2015년이후 어린이빈궁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의 불행한 운명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전도는 밝게 웃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력력히 비끼게 된다. 황금만능, 약육강식,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여나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꽃망울들의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마지막숨소리를 듣고있다.

박진향

#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 태풍피해

윁남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최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태풍으로 큰물과 산사태가 발생하여 17일현재 5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도로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7월까지 태풍과 큰물,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로 1만 8 840채이상의 살림집이 파손되였으며 1만 2 600ha의 농경지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 무더기비피해 계속 확대

인디아의 께랄라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여러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17일현재 사망자수가 164명으로 늘어나고 20만여명이 긴급소개되였다.

또한 1만km이상의 도로와 수백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주요비행장이 페쇄되였다.

5월말부터 주에서는 폭우에 의한 각종 사고로 3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피해현장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여 구제사업을 벌리고있다.

### 지진

-피지에서 19일 리히터척도로 8.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남위 18.06°, 서경 178.06°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일본의 이오섬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2km 떨어진 수역에서 17일 리히터척도로 6.4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바다물밑 11.75km 깊은 곳에 있었다.

이에 앞서 16일 이딸리아의 중부지역에서 리히터척도로 5.3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북위 41.8554°, 동경 14.8421° 되는 곳에 있었으며 6차례의 여진이 있었다 한다.

### 산불피해

미국의 몬타나주에서 최근 산불이 커져 피해를 입고있다.

지난 11일 벼락에 의해 일어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지면서 19일현재 7 800ac(에이커)의 산림이 황폐화되였으며 연기가 주변상공을 꽉 뒤덮어 심한 대기오염이 초래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에 경보령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월 13일에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9만 6 900여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3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